

2024. 3. 5.(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2133-2610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2133-2612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9쪽

관련 홈페이지

<http://www.seoulmaster.co.kr>

서울시, 무형문화재 18개 종목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실시

-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위해 소목장, 매듭장, 송서, 삼현육각 등 18개 종목 이수자 심사
- 무형문화재 종목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 중
- 심사 원하는 전수자라면 3.8.(금)~3.15.(금), 우편 방문 등 접수 가능

□ 서울시는 3.8.(금)~3.15.(금)까지 일주일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18개 기·예능 종목에 대한 이수자 심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에 심사하는 종목은 ▲소목장 ▲매듭장 등 기능 분야 5개와 ▲살풀이춤 ▲삼현육각 등 예능분야 13개 등 총 18개 종목이다. 심사 결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자를 이수자로 선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이번 이수심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량심사 및 종목 이해도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55개 종목이 지정되었다. 현재 59명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아 기·예능의 기본을 다진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수심사를 통과하면 ‘전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 이수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체계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수자들이 전승활동을 지속하면, 추후 전수교육의 주체인 ‘전승교육사’나 ‘보유자’가 될 수 있다.

- 이수심사 신청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심사를 원하는 전수자들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3.8.(금)~3.15.(금)까지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12월에 공고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02-2133-2616)나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02-742-6444)으로 하면 된다.

- 홍우석 서울시 문화재정책과장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은 미래세대에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문
2.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목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478호

2024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24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고내용

- 이수심사 대상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호 송파다리밟기 등 18개 종목
- 일정 및 장소 : <붙임 1>의 2024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대상 및 일정 참조
 -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 후 확정 및 통보 예정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2>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3. 8.(금)~3. 15.(금) 17:00까지
 - ※ 우편 접수의 경우 '24. 3. 15.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후 담당자 통화 확인
-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붙임3>. 1부.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사실 확인서<붙임4>. 1부.
 - 이력서(소정서식)<붙임5>.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6>. 1부.

나. 신청서제출

- 주 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재정책과
- 연락처 : 전화(02-2133-2616), 전자우편(forang3@seoul.go.kr)

□ 기능 종목(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분야 28종목)

연번	지정명칭(지정번호)	관련 사진	종목 설명
1	철장 (무형문화재 제1호)		철장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철기란 목기에 옫나무에서 채취한 나무액을 철한 용기를 말함
2	서울송절주 (서울무형문화재 제2호)		송절주는 싱싱한 소나무 마디 삶은 물과 쌀로 빚어 만들며, 약으로도 쓰이는 술을 말함
3	필장 (서울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은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인 붓을 만드는 사람 또는 기술을 말함
4	조선장 (서울무형문화재 제6호)		조선장이란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장인을 말함
5	삼해주 (서울무형문화재 제8호)		삼해주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궁중술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순조의 딸인 복온공주가 안동 김씨택에 시집오면서 그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함, 정월의 첫 돼지날에 담기 시작하여 돼지날마다 세 번에 걸쳐 빚는다고 해서 삼해주라고 함
6	향온주 (서울무형문화재 제9호)		향온주는 멥쌀과 찹쌀로 빚은 맑은 술로, 조선시대 양온서라는 관청에서 빚어 대궐 안으로 들여보내던 전통 궁중주임
7	침선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1호)		침선이란 바늘에 실을 꿰어 꿰뭍을 말하는 것으로 복식의 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침선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침선장이라 함
8	자수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2호)		자수는 바늘을 사용하여 직물 위에 오색실로 무늬를 수놓는 조형활동을 말하고, 자수를 놓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자수장이라고 함
9	매듭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이란 끈목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끈이나 매듭의 아래에 장식을 위해 다는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함
10	나전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4호)		나전장은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 위에 무늬가 아름다운 전복이나 조개껍질을 깔고 문양을 오려서 옷칠로 붙이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함

11	오죽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5호)		오죽(烏竹)은 예로부터 충효정절을 상징하여 매우 신성시 여겨던 대나무로, 오죽의 색채는 매우 아름답고 다양하며 표면 또한 철이 필요 없는 뛰어난 재료임. 이러한 오죽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오죽장이라고 함
12	초고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6호)		초고장은 화문석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함 (화문석이란 염색을 한 왕골을 손으로 엮어 무늬에 따라 잘라낸 돛자리를 말함)
13	은공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7호)		은공장은 은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함
14	민화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란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주로 한 일상생활과 풍습에 따라 그려진 실용적 그림을 말하며, 이런 민화를 그리는 사람을 민화장이라 함
15	체장 (서울무형문화재 제19호)		체는 장 담그기로부터 각종 요리가루 및 곡식류를 선별하고, 곡식을 씻을 때, 건조할 때 등 다양하게 쓰이는 가정의 필수 도구로, 이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체장이라 함
16	궁장 (서울무형문화재 제23호)		궁(弓)은 활을 말하는 것으로써, 전투용으로 사용되던 활을 전통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궁장이라고 함
17	소목장 (서울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은 목기를 만드는 공예로 장롱, 문갑, 탁자 등의 생활기구와 도구류, 창호와 난간 등 건축의 작은 시설물을 포함
18	악기장 (서울무형문화재 제28호)		전통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악기장이라고 함
19	등메장 (서울무형문화재 제29호)		등메장은 용수초로 침상이나 평상에 깔아 사용하는 자리나 보료, 동구리, 합 등의 생활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함
20	옹기장 (서울무형문화재 제30호)		옹(甕)은 '독'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로서 그릇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나 옹기는 단순히 그릇의 형태가 아니라 황갈색의 유약을 입힌 질그릇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독을 비롯하여 소래기·단지·시루·약탕기 등의 생활용기를 말함
21	단청장 (서울무형문화재 제31호)		단청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색을 기본으로 배색하여 여러 가지 간색을 만들어 목조건축의 천정이나 기둥 등에 문양을 그려 넣어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을 말함

22	입사장 (서울무형문화재 제36호)		입사는 철이나 구리 등의 금속 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홈을 파고 여기에 다른 금속을 박아 넣는 것으로, 주로 낫 제품이나 철제품에 은(銀)으로 장식한 은입사 공예품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나 드물게 금(金)을 입사한 경우도 있음
23	옥장 (서울무형문화재 제37호)		옥은 동양문화권에서 발달된 보석류로서 음양오행의 다섯 가지 덕인 인(仁)·의(義)·지(智)·용(勇)·각(角)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쓰임
24	홍염장 (서울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은 주로 홍화꽃을 이용해 붉은 색을 들이는 장인을 말함. 홍색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 등을 상징하던 색으로, 홍색으로 된 관복은 왕세자와 당상관 이상만 착용할 수 있었고, 홍색 가운데 가장 진한 색인 대홍색은 홍화염색을 8번 이상 반복하여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색이었음,
25	관모장 (서울무형문화재 제50호)		전통사회에서의 관모는 의관정제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였으며 복식 완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분과 의례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 소비되어 왔음
26	서울석장 (서울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 제작이 필수적이었고,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
27	무속지화장 (서울무형문화재 제54호)		서울 곳은 전통적으로 신격에 따라 지화를 다르게 제작하여 장식 하며, 지화는 신격을 대변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물로, 무속지화장은 이를 만드는 기술을 말함
28	불교지화장업 (서울무형문화재 제55호)		불교에서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지화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수행의 일부로서 종이 염색부터 설단 장엄, 해체 과정에서 신도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예능 종목(전통공연예술, 전통놀이무예, 의례의식 분야 27종목)

연번	지정종목		종목설명
1	송파다리밟기 (서울무형문화재 제3호)		다리밟기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놀이로 자기 나이만큼 개울가 다리를 밟으면 다리에 병이 나지 않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복도 불러들인다는 신앙적인 풍속에서 유래됨
2	장안편사놀이 (서울무형문화재 제7호)		편사놀이는 편을 짜서 활쏘기 경기를 하는 놀이로, 그 중 장안 편사놀이는 도성 안이 한편이 되고 변두리 몇 개의 활터가 한 편이 되어 경기를 하는 것
3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서울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는 서울 강동지역의 고유 민속놀이로, 쌍쌍여 호상놀이라고도 함, 호상놀이는 가정형편이 좋고 오래 살고 복이 있는 사람의 초상일 경우 노는 놀이로, 출상 시 험난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전날 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이 모여 빈 상여를 메고 밤새도록 민가를 부르며 말을 맞추는 놀이임
4	남이장군사당제 (서울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는 이시애의 난과 여진족을 격퇴하여 병조판서에 올랐으나 유자광의 모함으로 27세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이 장군(1441~1468)의 생을 안타깝게 여겨 그의 원혼을 달래주고, 충절을 기리고자 해마다 지내는 제사임
5	서울잡가 (서울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는 조선후기 서울의 만리동, 청파동 일대 '사계축' 소리꾼들을 시작으로 전문소리꾼들이 발전시킨 12잡가, 잡잡가, 휘몰이잡가를 서울의 지역성에 주목하여 붙인 명칭임
6	마들농요 (서울무형문화재 제22호)		농요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함, '마들'이란 지명의 유래는 상계동에 역참기지가 있어 말들을 들 판에 풀어 놓아 길렀기 때문이라는 설과 이 일대가 삼밭이어서 삼밭의 순 우리말인 '마뺨'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음
7	초적 (서울무형문화재 제24호)		초적(草笛)은 두껍고 질긴 나뭇잎을 입술에 대고 입김을 불어 연주하는 악기이며 동시에 이것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가리킴, 일명 초금(草琴)이라 하였고 풀피리라 이르기도 함
8	판소리고법 (서울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鼓法)은 판소리가 정착한 조선 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고수(鼓手:북치는 사람)가 북으로 장단을 쳐 반주하는 것을 말함
9	궁중다례의식 (서울무형문화재 제27호)		다례란 사람 또는 신불(神佛)에게 차를 달여 바치는 예의범절로서, 궁중다례를 비롯하여 유가·불가·도가의 다례가 있음
10	판소리 (서울무형문화재 제32호)		판소리는 광대가 병풍을 두르고 돛자리를 펼친 마당이나 공연장에서 고수의 북 반주로 짧게는 세 시간, 길게는 여덟 시간 정도 걸리는 긴 이야기를, 몸짓을 섞어가며 흥미롭게 노래하는 판의 예술임
11	행당동아기씨당굿 (서울무형문화재 제33호)		행당동아기씨당굿은 왕십리 일대에 있었던 진펄리마을의 마을굿으로, 음력 4월 15일 일부 마을토박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당주가 중심이 되는 마을굿이 열림

12	봉화산도당굿 (서울무형문화재 제34호)		봉화산도당굿은 400여 년 동안 주민의 안녕과 결속을 위하여 대동의를 고취시켜 온 서울의 마을굿으로, 중랑구 신내동 산 141번지에 위치한 봉화산의 도당에서 음력 3월 3일(삼짇날)에 지내는 마을굿임
13	밤섬부군당도당굿 (서울무형문화재 제35호)		밤섬부군당도당굿은 제례 형식과 무굿이 복합된 마을굿임. 밤섬부군당은 한강 밤섬에 위치했었으나, 1968년 한강 개발로 마을이 해체되고 주민들이 마포구 와우산에 모여 살게 되면서 부군당도 현재 마포구 창전동에 세워지게 됨.
14	재담소리 (서울무형문화재 제38호)		14~15세기 궁중에서 연행된 우희, 18~19세기 시정의 재담 연행으로 이어진 우리의 재담 전통이 1910년대 이후 박춘재의 재담 공연과 <발탈>에 그대로 스며들고, 이것을 계승한 것이 현재의 재담소리로, 1998년 백영춘이 복원한 것을 바탕으로 함
15	아쟁산조 (서울무형문화재 제39호)		산조는 남부지역의 무속음악에서 발생한 독주곡 형태의 음악으로, 남도 무속음악과 관련이 있는 시나위 혹은 심방곡·봉장취 같은 기악합주곡이 독주악기로 연주되면서 기교가 확대되었고, 판소리 가락을 도입하면서 틀이 잡힘
16	수표교다리밟기 (서울무형문화재 제40호)		다리밟기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전해져 온 풍속으로, 일년 중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해지는데 사람들은 이때 다리를 밟으면 일년내내 다리병(脚氣病)을 앓지 않는다고 믿었음. 1970년 정월 대보름에는 장충동에 있는 수표교에서 다리밟기 행사가 복원되어 전승의 맥을 되찾게 되었음
17	송서 (서울무형문화재 제41호)		송서는 전통사회에서 선비들이 일정한 음률로 한문이나 소설 등을 읽는 행위를 지칭함
18	삼각산도당제 (서울무형문화재 제42호)		도당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는 마을 신앙의 대표적인 갈래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을신을 제장에 모셨다 돌려보내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음. 삼각산도당제 또한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셔 의례를 행한 후 돌려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19	경제어산 (서울무형문화재 제43호)		어산은 불교 의식을 구성하는 소리를 뜻하며 흔히 범패라고도 하고 범음이라고도 하고, 어산을 범패라 칭하는 이유는 불교 음악이 인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찬양하는 것을 노래로 부른 것에서 유래됨
20	삼현육각 (서울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은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삼현삼죽(三絃三竹)'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며, 삼현은 현악기를, 삼죽(三竹)은 관악기를 각각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삼현육각'이라 함은 현악기를 가리키는 삼현의 의미는 사라지고, 피리와 해금, 북 등이 추가 편성된 관악기 위주의 악기편성을 가리킴
21	한량무 (서울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는 무용극 형식의 춤으로, 배역에 따른 연기와 춤, 장단이 어우러져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는 특징이 있고,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색시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한량과 떡중(승려)의 애정 춤사위가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함

22	살풀이춤 (서울무형문화재 제46호)		살풀이춤은 기방인(妓房人)들에 의해 그 호칭이 입춤, 즉흥무·수건춤 등으로 불리면서 보편화 된 춤사위가 생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함. 1936년에 한성준이 방안춤을 극장무대에 올려 최초로 살풀이춤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그 후로 점차 대중 사이에서 본격적인 살풀이춤이 등장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춤으로서 예술성이 인정되어 계승되고 있음
23	시조 (서울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유행한 시가(詩歌) 양식으로, 거문고나 가야금, 대금, 단소, 해금 등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를 노래하는 가곡의 영향을 받아 시조에 곡조가 생겨나면서 지역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음
24	서울맹인독경 (서울무형문화재 제48호)		맹인독경(謄經)은 옥추경 등과 같은 여러 경문을 읽으며 복을 빌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신앙 의례로, 독경은 20세기 초 반까지 전국에 분포했지만 지금은 급격히 줄어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태사(太師·맹인 세계에서 독경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25	전통군영무예 (서울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서, 정조대에 체계화된 「무예도보통지(1790)」에 의해 정비된 무예를 말함
26	생전예수재 (서울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는 살아 생전에 수행과 공덕을 닦는 재(齋)를 지내는 의식으로, 조선시대에 도성 주변의 사찰들이 불교의례의 명맥을 계승시키며 정착된 서울의 대표적인 윤달 풍속이었음.
27	결련택견 (서울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은 서울지역에서 전승된 택견의 겨루기 형식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임. 결련택견은 개인간 겨루기를 통해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 지역의 선수와 경기에 임하는 연승제 방식의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됨